비폭력·민족성 충돌… 인문학자의 선택은

허우성 교수, 동양철학회 좌담서 문제 제기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09년 7월 10일 런던에서 체재하던 간디는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됐다는 소식을 듣고 '용감한 일본병사'라는 글을 남겼다. 간디는 글을 통해 폭력으로 이토를 죽인 안중근도, 폭압으로 조선을 강탈한 이토도 모두 '비폭력'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불교의 가치인 비폭력 사상과 민족주의라는 지역적 가치가 충돌할 경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이 같은 철학적 화두를 불교학자인 허우성 경희대 교수는 7월 10~11일 서울 종로 관음종 묘각사에서 열린 한국동양철학회(회장 신규탁) 하계 워크숍에서 던졌다.

허 교수는 '비폭력 원리와 불멸의 민족혼이 충돌하면 한국 인문학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 질문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예로 내놓은 것이 안중근 의사였다. 안중근 의사는 15개의 죄를 열거하며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반대로 제시한 인물은 바로 간디다. 허 교수에 따르면 간디는 인도의 자치와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영국인을 피습하는 독립투사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실제 간디는 한 연설에서 "내 내셔널리즘은 우주만큼 광대하다. 나의 내셔널리즘은 전 세계의 복지를 포함한다"며 "나는 인도가 다른 나라의 잔해를 밟고 일어서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허 교수는 "저급한 동물부터 모든 나라를 포함한다는 우주적 내셔널리즘은 통상적인 자민족 중심의 민족주의와는 너무 달라서 도저히 민족주의로 부를 수 없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안중근 의거·간디 사상 비교해
민족혼·비폭력 갈등 상황 예시
외부 향한 분노, 사회 분열요소
가치 충돌서 철학적 화두 던져

그러면서 "간디의 우주적 내셔널리즘 바탕에는 아힘사의 가르침이 있다. 자비와 아힘사는 인도 초기불교 경전 이래 모든 불교경전의 기초적인 가르침이 되어 왔다"며 "붓다, 간디 같이 아힘사 원리에 입각한 사람은 정당화하기 쉬운 분노의 인간관에 동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동양철학회는 7월 10~11일 서울 종로 관음종 묘각사에서 '2018년도 하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허 교수는 분노의 인간관이 사회 단합을 해칠 수 있는 요소라고 봤다. 그는 "우리는 민족 외부로 향한 분노와 적개심이 우리 내부의 좌파, 보수의 시비와 대결에 침투하고 일치와 단합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면서 "부정적 감정들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워크숍에서는 현재 한국 인문학계가 어떤 위치에서 철학을 할 것인지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1부 '동양철학의 보편성과 지역성'에서 중국철학 연구자 오상무 고려대 교수는 자신의 그간 연구사를 회고하면서, 고전철학연구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철학자의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진솔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어서 인하대 철학과의 이봉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한국유학 연구의 역사를 요령 있게 정리 보고했다.

2부에서는 김성기 성균관대 교수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유학이 무엇인지, 그 현재성에 주목했다. 도교를 전공하는 김성환 군산대 교수는 일제강점기 도교학자였던 전병훈을 사례로 들어 '자기철학하기'가 가지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 역설했다.

만해와 백성욱 관계 모색한다

만해학회, 27일 '만해와 백성욱' 학술세미나



근현대 선지식이자 독립운동가, 정치인, 교육자였던 백성욱 스님(1897~1981, 사진)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처음 열린다.

만해학회(회장 김광식)는 오는 7월 27일 오후 1시 서울 강남 〈불교평론〉 사무실에서 '만해 한용운과 백성욱- 만해사상의 계보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중앙학림 강사로 재직했던 만해 스님의 영향으로 불교계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백성욱 스님은 1910년 봉국사에서 최하응(崔荷翁)을 은사로 출가해 득도했다. 3·1운동 때에는 상해임시정부에 참여해 독립운동을 하였다.

1920년 프랑스 파리 보배고등학교에 입학해 독일어 등을 공부한 뒤, 1922년 독일의 벌츠불룩대학 철학과에 입학해 1925년 벌츠불룩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귀국, 불교지 등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다가 1928년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수로 취임했다.

1946년부터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건국운동에 참여했고, 1950년 건국운동에 참여한 공로로 내무부장관에 임명됐으나 뜻과 같지 않아 5개월 만에 사임했다. 1951년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사장으로 취임했고, 1952년에는 부통령에 입후보하기도 하였다.

1953년 동국대 총장에, 1954년 동국학원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이후에는 85세를 일기로 입적할 때까지 불교의 전법에 매진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 같이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백성욱 스님의 생애 전반을 살핀다. 김광식 만해학회장이 '백성욱의 삶과 한용운'을, 정천구 前 영산대 총장이 '백성욱의 불교사상'을,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백성욱의 〈금강경〉 경문의 이해와 그 특징'을 발표한다.

김은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는 '백성욱과 동국대'를, 김성규 명지대 교수는 '백성욱의 평수잡조와 인문학적 글쓰기'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는 한상길(동국대 불교학술원), 윤창화(민족사), 황상준(동국대), 황인규(동국대), 이경호(서울교대)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미술자료' 93호 발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정기 학술지 〈미술자료〉 제9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회화, 도자기를 중심으로 연구 논문 3편과 자료 2편을 수록했다.

논문으로는 안휘준 서울대 명예교수의 '천수국만다라수장(天壽國曼荼羅繡帳)에 관한 신고찰', 오영인의 '고려후기 상감청자유개발탁의 제작과 그 배경', 박수홍의 '초전(蕉田) 오순(吳珣)이 그린 산수화 연구'가 있다. 자료로는 서유리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경남 산청군 장천리 도편(陶片) 소개', 이수경의 '신여량의 주사선연지도(舟師宣宴之圖) 제작배경 재검토'를 실었다.

특히 회화사 연구의 석학인 안휘준 명예교수는 일본 주구지(中宮寺)에 소장된 '천수국만다라수장'의 복원도를 새롭게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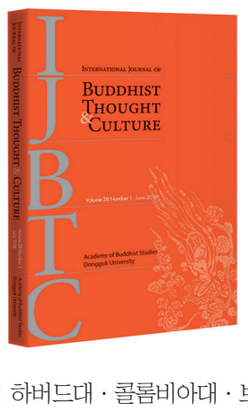
〈미술자료〉는 1960년 창간된 국내 최초의 미술사 전문 학술지다.

신성민 기자

동아시아 불교와 이웃종교 전통 고찰

동국대 불교학술원 IJBTC 28권 1호 발행

하버드대·홍콩대·도쿄대 등 세계 저명학자 논문 수록



동아시아 불교와 이웃 종교와의 상관관계를 조명한 영어학술논문집이 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은 "지난 6월 30일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이하 IJBTC)〉 28권 1호를 발행했다"고 7월 19일 밝혔다.

국내 최초 불교전문 국제 영문 학술지인 〈IJBTC〉 28권 1호는 '동아시아에서 불교와 이웃 종교의 전통(Buddhism and Other Religious Traditions in East Asia)'을 주제로 특집 논문 4편과 연구논문 4편, 서평 2편 등이 게재됐다.

이번 저널에 참여한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집필자들은 해당 국가의 역사, 철학, 불교학의 명문인 하버드대·콜롬비아대·브리티시콜럼비아대·도쿄대·북경대·홍콩대 소속 대표연구자로서 국제적 다양성과 학문적 전문성을 갖췄다. 국내에서는 옥스퍼드대 출신의 동국대 교수 카메론 베일리(Cameron Bailey)의 서평이 수록됐다.

특집 논문에 대해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1,700여 년 전 중국에 전래된 이래 동아시아 불교는 역사, 문화, 철학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중국, 일본 및 한국의 국가 문화에 근본적인 토대를 제공했다"면서 "이번 호 특집논문들을 통해 동아시아 불교와 이웃 종교의 전통에 대한 역사적 이해의 지평을 보다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집논문 외에도 초기 불교의 고(苦, dukkha)의 개념, 菩薩善戒經(보살선계경)에 드러난 바라밀 연구, 힌두교를 버리고 자유와 평등을 설법하는 불교에 귀의하는 개종 운동을 했던 암베드까르를 따르는 참여불교도들의 명상수행, 독특하고 중층적인 시각에서 고찰한 불교의 환경론 등 다양한 논문들이 게재됐다.

또한 근대 대표적인 한국불교저작들을 해외에 소개할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한 근대한국불교대표문헌 전체 시리즈와 티베트 불교 황금기에 대한 최신 저술에 대한 서평이 실렸다.

IJBTC는 한국불교 국제화와 불교학의 학제적 연구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10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KCI)로 선정됐다. 또한 톰슨로이터사의 새 데이터베이스와 미국신학도서관협회의 아틀라 종교분야 데이터베이스(ATLA DB)에도 색인 등재 선정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불자 교수들 재가신행지침 제작 나선다

한국불교학회, 8월 16~17일 하계워크숍서 논의

불자 지식인들이 재가불자들의 신행지침 제작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오는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동국대 경주캠퍼스 일원에서 2018년도 하계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은 '신진학자들이 연구한 우리 시대의 불교학'과 '재가불자의 신행지침 마련을 위한 토론회'으로 나눠 진행한다.

1부인 '신진학자들이 연구한 우리 시대의 불교학'에서는 최근 발간된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 대중적으로 주목할 만 한 연구들이 발표된다. 발표 논문으로는 '탄허 택성의 사교회통사상 연구(문광스님, 한국학중앙연구원)', '초기 지론학파의 알라야식 개념 연구(이상민, 고려대)',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무이중도 연구(김영미, 동국대 경주캠)'가 소개된다.

2부에서는 김성철 한국불교학회장을 좌장으로 '재가불자의 신행지침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재가불자 신행지침 제작은 김성철 회장의 공약 중 하나였다. 그는 불교 입문에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불자들이 일상생활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불자 신행 지침서'를 제작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워크숍 토론회를 통해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성철 회장은 "한국의 불자 수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재가불자들의 공통된 신행지침이 없다"면서 "동아시아, 남방 상좌부, 티베트 불교권 모두 동의하면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가불자의 불교 신행 지침을 △하루 △한 주 △한 달 △1년 △평생의 다섯 단위로 구분해 모색·제안하고 토론하려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